

## A Study on the Activation Strategies of the Inclusive Education and Disability Empathy Culture in the Information Society

Sang-Hee Park\*

\*Professor,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ivation strategies of the inclusive education by shar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creating a social disability empathy culture through literature review so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receive inclusive education in general schools can get along with good friend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various school or class ev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volunteer activities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the meaning, role, and activation strategies of inclusive education support for fostering disability empathy culture are described. Second, in terms of classroom management of classroom teachers, the meaning, role, and activation strategies of inclusive education support for fostering disability empathy culture are described. Third, in term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role, the meaning, role, and activation strategies of inclusive education support for fostering disability empathy culture are described. Fourth, in terms of school administrato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the meaning, role, and activation strategies of inclusive education support for fostering disability empathy culture are describ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spread the disability empathy cult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 have inclusive educ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be 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successfully.

▶ **Key words:** information socie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clusive education, disability empathy,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general school

### [요 약]

본 연구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좋은 친구와 어울리고 각종 학교·학급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소통,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통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일반학생들의 도우미 봉사활동 측면에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한다. 둘째,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측면에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한다. 셋째, 특수교사의 역할 측면에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한다. 넷째, 학교관리자와 교육행정기관의 지원 측면에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학생들이 정보사회에서 통합교육을 잘 받고 지역사회로 통합되는 데 필요한 장애공감문화를 확산하고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정보사회, 장애학생, 통합교육, 장애 공감, 일반학생, 일반학교

- First Author: Sang-Hee Park, Corresponding Author: Sang-Hee Park
- \*Sang-Hee Park (ha2shp@nate.com),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9. 12. 30, Revised: 2020. 01. 21, Accepted: 2020. 01. 21.

## I. Introduction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 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생활하다가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어울려 지내게 된 통합교육은 시작 초기에 비해 현재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강성종, 김용욱, 2010). 그러나 일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이 많아지면서 특수학급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의 만족도나 통합 환경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건만 통합교육 현장에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가 다양하다(김종삼, 2000; 손영화, 2012).

장애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을 죄악의 결과로 보거나 분리된 공간으로 격리시키면서 일반적인 삶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살게 함으로써 반인권적 생활환경에 처해있을 수밖에 없게 해왔던 장애학생의 인권과 통합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20세기 초의 분리교육을 1970년대의 메인스트림 교육과 1980년대의 완전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패러다임 이동을 가져오게 했다(민천식, 1997; Skrtic, 1995).

이 과정에서 완전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장애학생들이 분리된 교육환경을 벗어나 일반학생들이 학습하고 놀이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것과 같은 통합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완전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유무와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질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Walther-Thomas et al., 2000).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조직 및 장애학생과 학부모, 일반학생과 학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기타 교직원 등과 같은 학교 구성원의 의식이 재구조화되어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기능적 통합, 사회적 통합, 정서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Walther-Thomas et al., 2000).

위와 같이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쟁점들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초부터 장애학생의 인권 및 교육권 향상과 삶의 질 도모, 개별화교육, 지역사회 통합과 같은 점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통합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정주영, 2004). 하지만 특수학급 수 증대, 예산 확충, 시대적 흐름과 감각에 맞는 진로직업교육 모색, 교육과정 수정 적용,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좋은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 적용 등과 같은 노력을 해도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이 진정으로 통합되어 생활하는 데에는 늘 한계가 많다. 조명규(2002)는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이 교실에서 교육과정 수정을 적용한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제공받

고, 또래문화에 참여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아닌 장애학생을 일반학급 환경에 배치하는 물리적인 통합에만 너무 급급했다고 실패 원인을 지적했다. 즉, 일반학생들이 장애 친구를 곁에서 도와주고 함께 어울리려고 해도 장애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고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못 가졌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했다(조명규, 2002).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해 본 특수교사라면 누구나 공감되는 통합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해마다 장애인의 날 즈음이면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다양다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융합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양산해 냈다(강성종, 김용욱, 2010; 권희연, 이미애, 20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과 같은 경우에 대해 차별금지를 규정했다.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 차별의 금지 조항을 두며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수가 증대되고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많이 배치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특수교사만의 몫이 아니다. 지금은 통합교육이 활성화되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수가 급증했고 학부모의 장애자녀 통합교육 지원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사들이 장애학생을 통합학급에서 담임 맡아 학급 운영 시 일반학생들과 함께 지도하거나 교과 시간에 학습활동을 지도하는 일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통합교육 환경 속에서 일반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장애와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 장애학생의 통합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상호교류 및 소통, 인격적인 관계 맺기, 놀이친구 되기와 같은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학생이 장애를 공감하며 얼마나 자발적으로 도우려고 하는가에 의해 교류와 통합이 이어진다(강은영, 김진구, 2017; 김희규, 2004; 신재현, 2017; Feyerer et al., 2005; Ysseldyke et al., 2000).

현재와 같은 정보사회에서 담임교사는 컴퓨터,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밴드와 같은 것을 활용하며 정보기기를 적극 학생교육과 학급운영에 사용하고 있기에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의 봉사활동 도움을 받으며 통합학급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가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김동현, 전병운, 이지선, 2015). 학교관리자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상호 협력·소통하며 통합교육을 이끌어가도록 장애공감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행정기관과도 협력하여 통합교육 환경 안에서 장애공감문화가 조성되도록 정보사회의 특성을 이해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제공하며 교직원 연수, 학생 및 학부모 장애이해 홍보, 장애 학생 학교행사 참여 지원, 넉넉한 예산 확충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① 일반학생 도우미 봉사활동 지원, ② 담임교사 학급 운영 지원, ③ 특수교사 장애공감문화 조성 지원, ④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 기관 협력 지원 측면에서의 의미와 역할,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정보사회에서 통합교육을 잘 받고 지역사회로 통합되는 데 필요한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The Research Method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장애학생들이 학교졸업 후 지역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소통,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의미와 역할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장애학생들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점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1. 일반학생들의 도우미 봉사활동 측면에서의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측면에서의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특수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애공감문화 조성 측면에서의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는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 III. Results of the study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실태, 인식, 문제점, 개선점 등을 토대로 지원 방안을 논의한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① 일반학생 도우미 봉사활동 지원, ② 담임교사 학급 운영 지원, ③ 특수교사 장애공감문화 조성 지원, ④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 기관 협력 지원 측면에서의 의미와 역할,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좋은 친구'와 어울리고 각종 학교·학급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소통,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Volunteer activities of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일반학생 도우미 봉사활동 지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학생이 장애학생 통합 지원의 중요한 자원임을 보고한 선행 연구물들이 많다(강은영, 김진구, 2017; 김동현, 전병운, 이지선, 2015; 김라경, 강종구, 2013; 신재현, 2017; 정광조, 이대식, 2014; 조현경, 박승철, 2017). 연구자들은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만나서 도움을 주거나 상호작용할 기회가 적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친구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유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장애를 공감하는 등 인식 태도에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 만들기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이 드러났다(김동현, 전병운, 이지선, 2015). '좋은 친구'는 통합학급에서만 구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말고 교내의 상위학년이나 동일학년의 다른 학급학생들 중에서도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이 연구의 결과가 참으로 고무적이며 시사점이 크다.

일반학생 봉사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은 교육과정을 구현해 나가는 학교 교육활동 여정 속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교직원과 학부모, 일반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제반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래도우미 봉사활동과 관련된 학교운영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면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연중 시기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따라서 새 학년 초부터 학교 차원에서 학생봉사활동이 학교운영방침 및 계획을 통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통합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서는 일반교사 모두 장애학생의 담임과 같은 의식을 지니고 일반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협력하며 장애학생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지원해 나가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일반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수업은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목이다. 그 밖의 교과수업도 담임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장애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통합교육을 이끌어내는 게 가능하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수업과 학교행사, 학급 자율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현장체험학습 그리고 특수학급 생활 영역의 측면에서 정보사회의 특성을 살린 정보화 도구들을 활용하여 학생봉사활동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구상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현해 내며 통합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겠다.

일반학생이 봉사활동을 한 후 봉사점수를 인정받게 되는데 정보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좀 더 다양한 보상유형을 개발해서 일반학생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도 매우 필요하다(김동현, 전병운, 이지선, 2015).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관리자와 일반교사, 일반학생 학부모, 장애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및 장애학생들로부터도 더욱 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지게 될 것이다.

위 결과를 요약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정보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직원과 학부모, 일반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일반학생 봉사활동이 새 학년 초부터 학교 차원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며 다양한 유형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한다.

## 2. Classroom management of class teachers

담임교사 학급 운영 지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학생들은 통합교육을 받는 장면에서 심리, 정서적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들은 반복적인 학습실패로 인해 무력감에 자주 빠지

고, 열등감 속에서 생활하며, 낮은 자아 존중감을 지니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갖는다(김요섭, 2017; 임해주, 서효정, 2016; 정광조, 이대식, 2014). 그리고 장애학생들은 또래문화에서의 집단 따돌림, 일반학생들과의 활동 시 거부, 통합 환경에서의 불안, 우울감, 지속적인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교 거부 및 공포증까지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요섭, 2017; 김향지, 2001; 권효진, 이숙향, 2008; 송영범, 권상순, 이영선, 2013; 송현종, 조성은, 2006; 임해주, 서효정, 2010).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는 점을 살펴볼 때 통합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들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 있다. 일반교사들이 지도하게 되는 건강한 일반학생 자원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상호작용의 모델이 된다. 일반학교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반학생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이해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 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담임교사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통합교육 활성화 연수에 적극 참여하며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 어우러져서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학생들과 소통하고 학교 부속실을 찾아다니도록 돕고 학습지나 활동지를 챙기도록 해주고 학급 및 학교 행사 시 잘 참여하며 보내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하는 일반학생들은 담임교사의 통합교육 의지에 의해 그 역량이 더 발휘될 것이다(강은영, 김진구, 2017). 장애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해 나가야 할지 학급에서 모델이 되어주며 '좋은 친구'로 자리 잡고 있는 일반학생들을 담임교사가 성장시키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일반학생들이 학력지상주의 풍토 속에서도 통합교육 학교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더욱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함께해 주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더욱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고, 도덕성을 발달시키며 사회적 이해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력을 깊이 지니게 될 것임을 느끼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럴 때 담임교사는 학급 안에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게 되면서 정보화 도구들을 활용한 학급 운영을 통해서도 존중과 배려의 또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강은영, 김진구, 2017; 김동현, 전병운, 이지선, 2015).

청소년기에 장애인에 대해 어떤 인식을 형성하느냐 하

는 점은 장차 학교 졸업 후 성인기 생활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담임교사는 일반학생들의 학생 시절이 사회 전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형성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며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일반 학생 자원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매우 소중하게 보호받고 그 잠재력이 계발되어 역량을 발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위 결과를 요약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담임교사들은 통합교육 활성화 연수에 적극 참여하며 장애학생이 통합생활을 잘 하도록 이끌어주고, 일반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과 함께하기 위해 밴드, 카카오토키, 카카오톡 같은 정보화 도구 등을 통해서도 소통하며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장애이해, 소외계층 포용력을 깊이 지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 3. Special education teachers' role

특수교사 장애공감문화 조성 지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 현장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협력 부재, 적절하지 않은 자문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교육 제공도 적합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노선옥 외, 2006).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학생과 일반교사,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이며 너무도 중요한 자원이다. 특수학급 수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질적인 성장 면에서는 갖추어야 할 제반 것들이 많아 오랜 시간 동안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현장을 외롭게 지켜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특수교사 혼자 힘만으로 통합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감당해내야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의 질이 향상되도록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요구된다.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경험을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내면화되면서(지종민, 2010) 통합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송명숙, 이숙향, 2019; 이숙향, 이효정, 2017; 정광조, 김동일, 2014).

특수교사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장애의 특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통합교육 환경의 구성원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 문화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일반학생과 일반교사, 학교구성원들이 장애를 공감하며 협력하도록 정보화 기기들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며 지원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수교사는 통합교

육 환경 내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잘 중재하며 원만한 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전문성 있는 교수적 자질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 역할을 다해내며 일반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이 장애학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정보사회에 걸맞게 통합교육 활동을 지원해주도록 해야 한다(이숙향, 이효정, 2017).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급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의 개설을 위해서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 요구된다(김동현, 전병운, 이지선, 2015).

위 결과를 요약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환경의 구성원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 문화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학교구성원들이 협력하도록 정보화 기기들을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며 지원 의지를 이끌어내면서 다양한 갈등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잘 중재하며 장애공감문화 조성 역할을 다하고 통합교육 활동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 4. School administrato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upport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 기관 협력 지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관리자가 통합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은 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중한 의미를 지닌다. 학교관리자는 장애학생도 일반학생과 다름없는 학교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통합교육을 원활하게 받고 여러 학교행사에 자유로운 의사로 참여하며 사회통합과 재활의 삶을 성취해 가도록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통합교육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김라경, 2014).

류재연(2013)의 연구는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의 협력, 통합학급에서의 장애학생 방치 금지, 교수 적합화, 장애학생이 또래문화에 수용되도록 하는 환경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일반학교장의 임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관리자는 장애학생들의 존재가 일반학교에서 갖는 소중한 의미를 재해석해 교육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도록 이끌고 일반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이 학급에서 수업을 잘 받고 자율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해 주면서 통합교육을 지원하며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받도록 격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학교관리자는 적절한 예산 배부를 통해서도 장애학생이 지역사회

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들을 연마해가도록 지원해주고 진로 직업교육을 확충시키며 이동 기술, 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는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통합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교직원과 학부모, 일반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통합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일은 통합 협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갈등과 분쟁의 기회를 감소시키며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의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관리자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봉사활동이 학교운영방침 및 계획을 통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새 학년 초부터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및 통합학교 환경의 건물과 편의시설, 학습자료 그리고 다양한 교육장비 등과 관련된 학생봉사 활동 연계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다.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장애학생 전문상담사를 양성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일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장애학생 상담 시 행동수정이나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정기적인 연수나 재교육 등을 추진하여 교사들이 상담 역할을 기르도록 정부 관련부서나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하겠다(김요섭, 2017). 또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을 위한 차별금지 및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명문화하여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류재연, 2013).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고(제28조 제1항),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제28조 제2항). 한편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제28조 제3항),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며(제28조 제4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 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제28조 제5항). 또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제28조 제6항).

이렇듯 장애학생이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통합의 질을 향상시키는 현재의 교육 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같은 교육행정기관은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겠다(이영숙, 한경근, 박소영, 2010).

위 결과를 요약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학교관리자가 장애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감문화를 조성하고 풍토를 마련하도록 교육행정기관의 각종 지원이 요구된다. 이렇듯 정보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통합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교류·책임의식이 필요하다.

####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선행연구 문헌들을 대상으로 ① 일반학생 도우미 봉사활동 지원, ② 담임교사 학급 운영 지원, ③ 특수교사 장애공감문화 조성 지원, ④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기관 협력 지원 측면에서의 의미와 역할,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장애학생들이 정보사회에서 통합교육을 잘 받고 지역사회로 통합되는 데 필요한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학생 통합교육과 관련된 지원 의미, 교육적 성과, 문제점, 개선점, 시사점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논문들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들의 도우미 봉사활동 측면에서의 정보사회에 있어서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좋은 친구 맺기’나 놀이문화 공유 등과 관련된다. 학교 교육활동 속에서 또래도우미 봉사활동을 연중 시기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수업과 학교행사, 학급 자율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 특수학급 생활 영역의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활용하여 장애학생을 또래문화에 흡수시키면서 통합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측면에서의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일반학생들을 훌륭한 협력자로 이끌어감으로써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아실현의 길로 나가도록 스마트기기 등 정보도구를 적극 활용하며 소통, 관계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일반학교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 역량은 일반학생들이 학력지상주의 풍토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장애를 공감하며 함께해줌으로써 자아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소외계층 포용의식을 키워준다. 담임교사가 학급 안에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는 일은 존중과 배려의 토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셋째, 특수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특수교사 혼자 힘만 이 아닌 통합의 질이 향상되도록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환경의 구성원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서 일반학생과 일반교사, 학교구성원들이 장애를 공감하며 협력하도록 정보화도구를 이용하여 소통하면서 지원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럴 때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상황 중에도 원만하게 중재하고 장애공감문화 조성 역할을 다해내며 일반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학교관리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애공감문화 조성 측면에서의 통합교육 지원 의미와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은 학교관리자와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을 돌아보게 한다. 학교관리자는 장애학생도 일반학생과 다른없는 학교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 사회통합과 재활의 삶을 성취해 가도록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통합교육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학교관리자는 적절한 예산 배부,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충, 이동 기술 및 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향상, 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이 지역사회 경험을 풍부하게 하면서 성장해가도록 통합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교직원과 학부모, 일반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정기적인 통합교육 연수 및 홍보활동은 통합 협력의 자질 향상, 갈등과 분쟁의 기회 감소를 통해 범사회적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정보 공유 및 소통,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통합이 아니라 정보 공유 및 소통이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전문가 양성 및 교사교육, 연수를 통해 전문가 팀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학생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통합 문화가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통합이 존중과 배려, 공감의 의미

를 가지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행정기관이 통합교육 이해를 통해 각종 제반 시설 및 예산 지원을 하고 학교관리자는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문화 혁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많이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확산'과 관련된 교육 활동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스며들도록 정보화도구 등을 활용하여 노력하고 교육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ACKNOWLEDGEMENT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in KWUI19-079.

## REFERENCES

- [1] Sjang, Ywkim, "Consideration Approach for Convergence Study in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44, no.4, pp. 19-42 (24 pages), 2010. UCI : G704-000685.2010.44.4.015
- [2] Yskang, Syhwang, Mooh, "Kindergarten Directors' Perceived Current Conditions and Recognition of Inclusive Education for Disabled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3, No. 1, pp. 45-62, 2008. DOI : 10.26592/ksie.2008.3.1.45
- [3] Eykang, Jkkm,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Context of Middle School Inclusive Class and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of Peers who nominated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2, No. 2, pp. 45-68, 2017. DOI : 10.26592/ksie.2017.12.2.45
- [4] Hjkwon, Shlee, (2008), The Effect of a Program to Facilitate Understanding of Disability on Attitude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6(2), 33~54, 2008. DOI : 10.35151/kyci.2008.16.2.003
- [5] Hykwon, Melee, "A study on the Perception on the Righ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Influence on the Personality of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Integrated Educatio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0, No. 2, pp. 1~27, 2015. DOI : 10.26592.ksie.2015.10.2.1
- [6] Dykim, Bujun, Jsle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Good Friend' Activity of High School for Inclusive Education", The

-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0, No. 1, pp. 1~34, 2015.  
DOI : 10.26592/ksie.2015.10.1.1
- [7] Rkkim, Jkkang, “Introducing a Service-Learning Project to Increase All Students’ Participation i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8, No. 2, pp. 55~77, 2013.  
DOI : 10.26592/ksie.2013.8.2.55
- [8] Rkkim, “Relationship Between Principals’ Support of Inclus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Burnout of Elementary Teacher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9, No. 2, pp. 23~43, 2014. DOI : 10.26592/ksie.2014.9.2.23
- [9] Yskim, “Reality and Improvement Strategy in Counseling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Settings of Secondary School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2, No. 2, pp. 159~184, 2017. DOI : 10.26592/ksie.2017.12.2.91
- [10] Jskim, “The regular children's attitude to handicapped children and handicapped persons according to integrated education experience, grade and sex”, master's degree thesises of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0.
- [11] Hjkim, (2001), Counseling for Facilitating the Full Inclusion of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s and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0(2), 241~257
- [12] Hykim, “Practice on Supporting Inclus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Focusing on Cases in U.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1, no.2, pp. 133-154, 2006. UCI : G704-SER000001573.2006.1.2.002
- [13] Hgkim, “The Effects of education to understand disabilities for Nondisabled Children's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11, no.2, pp. 47-68, 2004. UCI : G704-001542.2004.11.2.020
- [14] Sono, Kskang, JMKim, YJO, YOKim, SYKim, KHJung, MSJung, JSBae, SJPark, “Curriculum Management Data for Grades 3-6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School”,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06.
- [15] Jyoo, “A study on the Legal role of Special education class for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9, No. 1, pp. 159~184, 2013. DOI : 10.26592/ksie.2013.8.1.1
- [16] Csmin, The Paradigm Shifts in Social Sciences and Restructuring Special Education, Doctoral Thesis of Taegu University, 1997.
- [17] Yhson, “Qualitative Research on Inclusive Education Problem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4, No. 2, pp. 91~113, 2012. DOI : 10.21075/kacs.2012.14.2.91
- [18] Mssong, Shlee, “Review of Research Trends regarding Co-teaching for Implementing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4, No. 2, pp. 1~26, 2019. DOI : 10.26592/ksie.2019.14.2.1
- [19] Ybsong, Sskwon, Yslee, (2013), A Study on Bullying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Classroom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8, No.2, 1~21, 2013. DOI : 10.26592/ksie.2013.8.2.1
- [20] Hjsong, Secho, (2006), Comparison of the Attitude Toward Counseling Between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 Students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13, No.1, 49~66, 2006. UCI : G704-001542.2006.13.1.004
- [21] Jhshin, “A Longitudinal Study on Learning Activity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Culturally Diverse Students i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2, No. 1, pp. 53~74, 2017. DOI : 10.26592/ksie.2017.12.1.53
- [22] Shlee, Hjlee, “A Study on Competencies and Support Need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inclusive settings for Developing Inclusive Education Manual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2, No. 2, pp. 21~43, 2017. DOI : 10.26592/ksie.2017.12.2.21
- [23] Yslee, Kghan, Sypark, “A Study on Educational Administrative Supports for Promoting the Reverse-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5, No. 1, pp. 21~46, 2010. DOI : 10.26592/ksie.2010.5.1.21
- [24] Hjlim, Hjseo, (2016), The Experiences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ir Typical Peers o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11, No.2, 105~137, 2016. DOI : 10.26592/ksie.2016.11.2.105
- [25] Kjjung, Dikim, “The Search for Potential about Response to Intervention(RTI) to Solve the Problem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Curriculum in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9, No. 1, pp. 159~184, 2014. DOI : 10.26592/ksie.2014.9.1.159
- [26] Kjjung, Dslee, Variables Related to General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and Attitudes to Disabilities.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9, No.2, 69~92, 2014. DOI : 10.26592/ksie.2014.9.2.69
- [27] Jyjeong, “Regular teachers' awareness and Practice on inclusion and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in the inclusive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14, No.2, pp. 309~336(28 pages), 2004. UCI : G704-001542.2004.11.2.008
- [28] Mkcho, “Effect of intergration's education by experience's activity program affect to vary normal childern's changable attitudes toward childern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9, No.2, pp. 61~80(20 pages), 2002.
- [29] Hkjo, Sckwak, “The Ethnography of an Integrated Play Group”,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12, No. 2, pp. 137~166, 2017. DOI : 10.26592/ksie.2017.12.2.137
- [30] Jmjee, “Narrative Inquiry about Implementing Inclusive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1, No. 4, pp. 181~205, 2010. UCI : G704-001047.2010.11.4.022
- [31] Feyerer, E., Hayward, L., Hedge, N. (2005). European Masters in Inclusive Education. Institute of Inclusive Education. Linz.

- [32] Skrtic, T. M. (1995). *Disability and democracy: R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for postmodern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33] Walther-Thomas, C., Korinek, L., McLaughlin, V. L., & Williams, B. T. (2000). *Collaboration for Inclusive Education: Developing Successful Programs*. Boston: Allyn and Bacon.
- [34] Ysseldyke, J. E., Algozzine, B., & Thurlow, M. (2000). *Critical issues in special educatio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Authors



Sang-Hee Park received Ph.D. in Special Education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06, respectively. Dr. Park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 the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in Korea since 1994. She is interested in the Intellectual Disability, the Transition Education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the Special Education Methods.